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1호 [부제 제25049호] 주제 104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같은 헌신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며 인민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현대적인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건조되어 락원의 강, 대동강에 두동실 뗏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였다.

황병서동지, 김기남동지, 김양건동지, 오수용동지,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시설들과 문화후생 시설들을 갖춘 종합봉사선을 잘 무어 옥류교와 대동교사이에 띄워놓으면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휴식 장소를 마련해주게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차례나 설계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배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명명해주시였다.



에서 잘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요소요소가 흠잡을데가 없고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경지에서 실현 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종합봉사선의 판통홀에 들어서니 호텔에 들어온것 같다고, 홀을 중심으로 매 층에 배치된 여러 식당들이 정말 멋있다고, 모든 식사실들의 형식이 다양하고 이채롭다고,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특색있는 원형승강기를 배치한것도 좋고 계단도 원형으로 시공했는데 잘 했다고, 특히 4층에 꾸려놓은 회전전망식당이 희한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부강하는 평양의 모습이 불만 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지개》호는 인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봉사시설인

민족음식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요리들을 봉사받으며 풍치수려한 대동강을 유람할수 있게 건조된 《무지개》호의 연건평은 1만 1,390여㎡, 길이는 120m, 너비는 25m, 배수량은 3,500t이다. 4층으로 된 《무지개》호에는 민족요리 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식당, 야외갑판

식당, 회전전망식당, 상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이 그쁘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 유보도에 서서 불야경을 이룬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바라보시며 칠색명룡한 무지개같다고, 대동강이 더욱 밝아졌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평양은 낮에 보아도, 밤에 보아도 정말 황홀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의 수용능력이 대단한것만큼 원자재보장대책을 잘 세워야 정상운영을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며 누구나 즐겨 찾는 인민의 봉사기지로 되게 하자면 봉사자들이 대동강에 현대적인 봉사선을 띄워놓고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이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면서 건조실래와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현대적인 봉사시설이 또 하나 생겼다고, 대동강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의 설계와 내외부시공이 최상의 수준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었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날로 약동하고 문명해지는 사회주의조국의 모습과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창조물, 만남의 편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이 하루 빨리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가 어려있는 결정체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남포조선소를 비롯한 선박공업부문과 조선인민군 제 5141군부대의 일군들, 근로자들, 군인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실천으로 받아들여가는 길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현대적인 종합봉사선을 우리 식으로 훌륭히 건조함으로써 당장건 일흔둥을 맞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



봉사선 《무지개》호는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봉사기지로 흥성일것이라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



가 가서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 놓을 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10월 10일전에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건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모든 명역에서 세계적인수준에 올라설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자면 앞으로 건설하는 모든 봉사시설들을 《무지개》호수준으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깊은 밤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평양의 자랑인 대동강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없이 울려 퍼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로씨야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멘탈-플류스유한책임회사, 그라드스트로이그플유한책임회사, 스페츠레브스보스파르카유한책임회사 총사정들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로씨야 멘탈-플류스유한책임회사 총사정 에스. 엔. 카우노브, 그라드스트로이그플유한책임회사 총사정 엠. 이. 가위아에게 드렸다.

사 총사정 아. 이. 벨로멘스키가 11일과 22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22일 로씨야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에는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김일성명칭 념성동맹, 주체사상연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23일 벨라루스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벨라루시공산주의 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인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상설사무위원회 위원장 엠. 슈발리니코프가 선출되었다. 벨라루시공산주의 근로자당,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연맹과 연맹공산당을 위하여》전국

사회연합, 《조국과 쓰딸린을 위하여》국제사회연합, 《민주주의와 사회진보, 정의의 위하여》사회연합을 비롯한 정당, 단체 인사들이 준비위원회에 망라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혁명적원칙을 고수해나가는 강위력한 당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을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 \* \*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위 콤파, 전인디아 진보전선 중앙위원회 비서 위. 데마라잔, 인디아 김일성로작연구회 위원장 에스. 피. 파라크를 비롯한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있는 당이다, 김일성명칭 동지께서는 김일성주의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 조선로동당을 명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었다, 그의 현명한 명도함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깎 들어간 사상적순결체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으며 혁명의 온갖 풍파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고수해나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위용될지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 \* \*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위 콤파, 전인디아 진보전선 중앙위원회 비서 위. 데마라잔, 인디아 김일성로작연구회 위원장 에스. 피. 파라크를 비롯한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있는 당이다, 김일성명칭 동지께서는 김일성주의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 조선로동당을 명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었다, 그의 현명한 명도함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깎 들어간 사상적순결체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으며 혁명의 온갖 풍파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고수해나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위용될지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 로트니아, 나이지리아에서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천백송 조선로동당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모라》, 《당창건기념탑》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인민당 중앙서기국 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각께서는 조선은 강위력한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시었다. 국력이 약하여 외세의 식민지로 되었던 조선이 진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지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들의 높이 모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의 명도가 있기때문이다. 로트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이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각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나이지리아 다마렐공영유한회사 사장 등 인사들은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이인위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명도함에 조선에는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끄는 인민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자

##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첫 공정으로 삼고

### 평안북도당 위원회 사업에서

평안북도당의 농촌들에서는 올해의 영농투쟁을 힘있게 벌여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좋은 작황을 마련해놓았다.

이것은 도당위원회가 도안의 시, 군당조직들과 농촌당조직들이 과학농법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고수확을 위한 사업을 잘 하도록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운 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슨 사업에서나 성과를 거두려면 그 사업의 주인인 대중의 정치적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주어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성을 적극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성과를 거둔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여 올해농사에서 과학농법의 위력을 더욱 높여 펼쳐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었다.

여기에서 도당위원회는 두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그 하나는 도안의 당조직들이 지난해에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둔 것과 경험, 나타난 부족점들을 정확히 찾고 올해사업에서 혁신을 가져오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운 것이다.

도당위원회는 지난해에 강령이 농사에서 풍자적온처리방법을 받아들여 불철영농시기에

강장한 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면서도 높은 수확을 거둔 데 반관관의 경험, 이론론도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최고수확량을 도수준을 돌파한 선진군 석화협동농장에서 도적인 모내기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지관해 벼농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경험의 하나인 평당 포기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고 자기단위의 토양조건에 맞게 평당 포기수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직사업에 따라 올해도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당원들과 행정직제일꾼들이 자기 단위의 토양조건에 맞는 평당 포기수를 확정할 조건에서 벼모내기부터 시작하여 모내기도 밀고나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영안단지모에 의한 모내기면적도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 가을이 심한 조건에서도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안의 당조직들이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운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도당위원회가 올해에 과학농법을 틀어쥐고나가는데 중시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새로운 영농방법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받아들일수 있게 10일이상 앞당겨가며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면서 그 집행을 위한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웠었다.

올해에 도당위원회는 이론론도의 씨뿌리기를 시작할 때부터

로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당면한 영농과업수행형태와 함께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제때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해나갔다.

화상회의에 앞서 도당책임일꾼은 늘 현지에 나가 과학적인 영농방법들을 받아들여는데서 나타났고있는 공부정리자들을 명백히 갈라치기 사업을 놓치지 않았다.

도당책임일꾼은 화상회의에서 그 자료들을 대비속에 알려주고 새로운 영농방법들을 지체없이 도의 모든 협동농장에 일반화하는데서 뒤떨어지는 단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도당위원회 조직부 책임지도원들과 선진선동부 담당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여 그들이 담당할 시, 군들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앞세워 과학농법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였다.

그러한 실행을 통해 이론론도의 씨뿌리기날자를 지난해보다 앞당겨주도록 한 사실은 농고도 높을수 있다. 원래 도에서는 지난해의 경험에 비추어 올해에도 2월 25일경부터 이론론도의 씨뿌리기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눈이 오면서 날씨가 몹시 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정리위원회에서는 첫 씨뿌리기날자를 좀 늦추도록 하였다.

하지만 총체적인 씨뿌리기

기일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도당위원회는 시, 군당위원회와 시, 군급기관의 부장이상 일꾼들이 한계 협동농장의 담고 내려가 씨뿌리기전투에서 농고로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여도록 하였다. 그리고 씨뿌리기전투에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은 당조직들에서 제때에 장악하고 강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지난해에 10~15일이 걸렸던 벼모내기 일꾼들을 올해에는 7~10일만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는것을 사상관념문제로 보고 도당위원회 책임일꾼으로부터 시, 군, 농촌의 당조직들과 당원일꾼들에게 이르기까지 농고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는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였기에 도에서는 올해농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과학농업도 사상관념이 바로설 때 정확하게 실현될수 있다. 이것을 평안북도당위원회의 사업이 다시금 확충해주고 있다.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이 평안북도의 당조직들과 당원일꾼들처럼 과학농법을 받아들여는 사업을 사상관념문제로 보고 과학농업을 위한 사업에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정리위원회에서는 첫 씨뿌리기날자를 좀 늦추도록 하였다.

하지만 총체적인 씨뿌리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일꾼들은 언제나 높은 사업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선진군 건설리당위원회 일꾼들이 늘 가지고다니는 사업수첩의 한 갈래에는 《좋은 중추주인의 적극성=성공》이라는 글이 적혀져있다. 여기에 당의 과학기술시책을 함담해 받들어나가는 이 곳 리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상관념과 투쟁기풍이

## 높은 실력으로 떠밀어주자

###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고 있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을 10월의 대추진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당일꾼들의 총모는 참으로 비범하다.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공과를 많이 이룩한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의 한 기술자의 진심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오늘의 최첨단과제에서 우리 기술자, 기능공들은 기업소당책임일꾼들의 참모습을 새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일꾼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인재들을 떠밀어줄준비는 팔방미인입니다.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목표를 겪을 때마다 지혜를 합쳐주고 착상도 힘겨움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진짜실력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자만이 아니다.

실력가행의 당일꾼들에 대한 이런 진심의 목소리는 저 멀리 북방의 대야강기로부터 공방새한 어장들, 건설장들과 협동농장들을 비롯하여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단위들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다. 거리와 마을, 일터들을 들쉴수록 하며 매일같이 전해지는 최첨단과제들의 세 소식들마다에 시대의 부름대로 실력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당일꾼들의 모습이 비껴있다.

《과학기술실력은 당사업의 위력한 무기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꾼들도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할수 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원만히 할수 있습니다.》

생산과 과학기술이 밀착되어 진행되는 오늘날 당일꾼들의 과학기술실력이 높아야 단위사업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한 지름길을 찾을수 있고 최첨단과제에서 주도성과 창조성, 능동성을 발휘할수 있다.

과학기술실력이 높지 못하면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고 그들과 허물없이 섞힐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과의 사업도 실속있게 할수 없게 된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은 과학기술실력이 높은 당일꾼들에게 사업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허물없이 러놓게 되며 실력전의 앞장에서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당일꾼을 따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도 이룩하게 된다.

당일꾼의 실력은 인재들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게 하는 열쇠이며 비약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게 하는 힘있는 원동력이다.

《당일꾼들은 높은 실력을 견비해야 당과 국가앞에 자기 단위의 사업을 책임질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당일꾼들이 높은 총성의 열도를 가지고 맡겨진 책임무거운 일을 수행하려는 결심을 가졌다고 해도 과학기술실력이 높지 못하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책임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일꾼들은 자기 단위의 운영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과학기술실력을 지니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

당일꾼들은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따르는 다양한 지식들을 폭넓게 소유하는것과 함께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에 정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일꾼들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학습시간은 쉼대기때이다. 당일꾼들은 늘 손에 책을 들고다니며 학습을 꾸준히 하여 실력의 탑을 더 높이 쌓고 집단안에 실력향상, 실력경쟁의 불바람이 새차게 일어번지도록 추동하여야 한다.

당일꾼들은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이 일하는 전무장들에 나가 마음과의 사업, 사상감정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을 서로 허심하게 배우고 배워주는 과정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최첨단과제를 위한 기술혁신전투장에 대담하게 뛰어돌아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과 어깨를 이겨준 어려운 기술혁신과제를 보란듯이 수행하는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그러하여 당일꾼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10월의 대추진장에 자랑찬 선물을 안고 몇몇이 들어서게 하는데서 밀거름, 밀밭이 되어야 한다.

## 조진보장도 위력한 정치사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하며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것만으로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지 못한다. 이점을 명학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을 통해 보도록 하자.

올해 6월 과학기술보급실을 건설할 때였다. 건설계획초안을 검토하던 초급당에서 정철식동무는 건물의 규모가 작게 설계된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를 묻는 초급당위원회에서 일꾼은 단판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다 고 하였다.

리해가 되었다. 덩치가 큰 건물을 건설한다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다.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꾼들은 언제나 높은 사업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선진군 건설리당위원회 일꾼들이 늘 가지고다니는 사업수첩의 한 갈래에는 《좋은 중추주인의 적극성=성공》이라는 글이 적혀져있다. 여기에 당의 과학기술시책을 함담해 받들어나가는 이 곳 리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상관념과 투쟁기풍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꾼들은 언제나 높은 사업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선진군 건설리당위원회 일꾼들이 늘 가지고다니는 사업수첩의 한 갈래에는 《좋은 중추주인의 적극성=성공》이라는 글이 적혀져있다. 여기에 당의 과학기술시책을 함담해 받들어나가는 이 곳 리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상관념과 투쟁기풍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꾼들은 언제나 높은 사업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선진군 건설리당위원회 일꾼들이 늘 가지고다니는 사업수첩의 한 갈래에는 《좋은 중추주인의 적극성=성공》이라는 글이 적혀져있다. 여기에 당의 과학기술시책을 함담해 받들어나가는 이 곳 리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상관념과 투쟁기풍이

## 주인의 적극성이 기본이다

### 선진군 건설리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꾼들은 언제나 높은 사업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선진군 건설리당위원회 일꾼들이 늘 가지고다니는 사업수첩의 한 갈래에는 《좋은 중추주인의 적극성=성공》이라는 글이 적혀져있다. 여기에 당의 과학기술시책을 함담해 받들어나가는 이 곳 리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상관념과 투쟁기풍이

##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 령대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령대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 대성산혁명렬사릉,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추석을 맞이 하여 화환 진정

### 【평양 9월 27일 조선중앙통신】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에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추석을 맞이하여 27일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추석을 맞이하여 화환 진정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추석을 맞이하여 화환 진정

#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농업전선

## 과학적인 분석과 정확한 결심채택

### 안악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안악군 일군들이 10월의 대축전장을 맞이하여 일군들의 안고 가을걷이와 낱알떨기 작업을 질적으로 하기 위한 작전을 설정해 맞게 짜고들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당 수확을 높이며 농사경색을 잘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 철저과학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담당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설정해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에서는 예제 지은 낱알을 가을걷이철에 잃어버리는 현상을 막음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다. 군의 일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을걷이작업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담보를 마련한 경우가 바로 그들이다.

군일군들은 예상수확고보다 실지 더 많은 수확을 내게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려면 가을걷이작업을 정확히 선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았다.

이 문제를 놓고 심중히 토의한 끝에 군일군들은 올해에는 벼의 생육상태에 맞게 가을걷이를 지남보다 늦게 시작하면서도 빠른 기간에 끝내기 계획 하였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 올해의 무더운 기후조건과 물, 비료보장조건으로 해서 벼생육이 늦어졌고 이삭들의 여분풍도 농장, 작업반마다 서로 각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을걷이작업을 보장한다 하면서 벼베는 다른 올해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남처럼 벼농사전문가들이 담당할 조건별과 저마음 벼거리를 진행하게 한다면 재 물리지 못한 낱알을 수확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조건들의 벼이삭들이 다 여분기를 기다린다면 가을철에 있을 수 있는 뜻밖의 자연피해를 받아 예제 지은 많은 낱알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화를 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당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작업반도 혁신적인 안목에서 앞을 내다보며 예전성있게 해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을 깊이 새긴 군일군들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조건들을 살펴보고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 찾은 결론은 두가지였다.

하나의 벼농사전문가들에서 생육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벼이삭이 여분 정도에 따라 물베기를 할 조건과 눈에 물을 계속 대야 할 조건을 바로 정해 주는 것이었다. 논베기를 잘하지 못하면 논안이 마르는 정도가 조건마다 각이하여 수확고와 가을걷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토양조건에 맞게 논베기를 5-7일전에 선행시켜 논안을 말려주게 해야 하였다.

다른 하나는 여분물에 따라 조건별과 가을걷이할 시기와 순차를 정확히 정해주어 이른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봄내어붙는데 예제 가진 낱알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가을걷이를 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방법론이 없이 포지나 하고 강조나 하는 식으로 일해가지고서는 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올 수 없다.

문제를 이렇게 본 군일군들은 즉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가을걷이, 낱알떨기와 관련한 여분기 사업을 엄격히 농장에서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실지 조건에서 생육조사와 논

베에서 분조마다 성능높은 이동식 소형탈곡기들이 준비된 조건에서 만가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나갔다. 그 과정에 이들은 이동식 소형탈곡기들로 조건에서 낱알떨기 작업을 하는 조건에 맞게 농장들에서 이동수리조를 조직하거나 논베기에서 각 조장단 탈곡기들을 즉시 가동시키기로 하였다. 이 경우, 기능공들을 망라시키며 현장에서 고장난 탈곡기들을 즉시 수리한다던 약속을 맺은 기간에 낱알떨기를 할 수 있었다.

즉시 군일군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모든 농장들에서는 이동수리조를 조직하였고 내부에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탈곡기들의 만가통보장에 필요한 여분까지 예비부속품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동시에 벌어져 좋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곳 일군들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판단과 분석에 기초하여 혁신적으로 일해나간다면 나라의 쌀독에 더 많은 수확을 채워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전 명 일

###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벼를 잘 길어들이고 낱알떨기를 끈기있게 하여 한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셨습니다.》**

가을걷이의 질보장에 알곡증수의 예비가 있다.

증산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창수동무를 비롯하여 농장에서는 이러한 립장에서 원심을 썼다. 그들은 지난해와 올해의 가을걷이조건을 분석하여 정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 지난해에는 벼를 베서 논허리고 2-3일만 말려놓은 다음 다음에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진다. 벼가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헹기게 된다. 만약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알았을 때, 벼가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헹기도록 하는 공정을 짜고들었다. 또한 지난해보다 벼가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헹기도록 하는 공정을 짜고들었다. 또한 지난해보다 벼가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헹기도록 하는 공정을 짜고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가을걷이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

### 변화된 조건에 맞는 작전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 일률적으로 조직할 일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른 아침 넘쳐 낱알을 채고 밭로 나온 금야군 구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장리종선동무를 주축한 일군들이 밭에 밭을 밟고 있다.

세백이슬을 머금은 무겁게 고개숙인 누런 벼이삭들, 벼베에 스며드는 구수한 낱알향기... 이 가을을 바라고 모두가 봄내어붙어 벼에서 살며 땅과 일정을 아끼지 않아 바쳐 오지 않았던가. 당장진 일흔꽃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절명할 불라는 애국의 마음속으로 최상의 자연기후조건을 극복해가며 달려온 낱알들이 입안에 영글은 이삭마다에서 가슴찡찡하게 어려웠다.

### 금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구룡협동농장에서

### 일률적으로 조직할 일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지은 위대한 수평선과 장군님의 영도사색을 빛내이고 유능을 철저히 발휘하여 수평선과 장군님의 영도의 뜻과 범위를 현실히 쫓아내야 한다.》**

태원청년도끼종축장은 위대한 수평선에서 가릴한 권외의 나뉠에 품소 세우시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오셔서 수평선의 영도업적을 빛내어도록 현명하게

### 바로 정한 산림조성의 선후차

당정책의 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찰해야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상상력의 실적을 낼 수 있다.

주체 97(2008)년 7월 어느날 태원청년도끼종축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카시나무를, 참나무 그리고 밤나무를, 장나무를 이기는 혼신력으로 조성하여 리용하고 있는 사실을 료해하고 높이 평가해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믿음과 사랑을 받으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나무심기와 돌판조성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달려 지금 100여점의 산에서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비결은 한마디로 산을 건 곳에서는 산을 옮겨 리용하며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충실히 실천한 문제다. 받아들이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종축장은 새언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다. 산의 면적은 100여점인데 풀과 고기를 100년 회정순풍투구 지배인으로 임명되어 종축장으로 왔을 때 산에는 온통 풀과 나무가 없고 산이 황폐한 상태였다. 종축장은 산을 건 곳에서는 산을 옮겨 리용하며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충실히 실천한 문제다. 받아들이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종축장은 새언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다. 산의 면적은 100여점인데 풀과 고기를 100년 회정순풍투구 지배인으로 임명되어 종축장으로 왔을 때 산에는 온통 풀과 나무가 없고 산이 황폐한 상태였다. 종축장은 산을 건 곳에서는 산을 옮겨 리용하며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충실히 실천한 문제다. 받아들이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 몇 해 사이에 새끼 생산을 8배로 늘인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창조한 혁신

###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창조한 혁신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일군들이 산을 옮겨 리용하며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충실히 실천한 문제다. 받아들이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 생은 짧아도 소중한 추억을 남긴 불같은 사람

룩 해운성 아래 해운관리국 로동자였던 흥철 호동무

위대한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여 값있는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영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모습을 남기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특별해운성아래 해운관리국 로동자였던 흥철호동무의 겹겹이 쌓인 추억을 되새기고 있다.

우리는 특별해운성아래 해운관리국 로동자였던 흥철호동무와 영결하고 돌아온 혈육들과 친지를 함께 일한 종업원들이었다. 그들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특별해운성아래 해운관리국 로동자였던 흥철호동무와 영결하고 돌아온 혈육들과 친지를 함께 일한 종업원들이었다. 그들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투를 뱌 리미명녀성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흥철호동무는 언제나 학급학생들의 거울이었다. 최우등생이고 학교풍구선수였던 그는 노예노예 노예, 기러기인 것 같아 보였지만 우는 우는 학생이었다. 더우기 동무들에 대한 사랑과 의리심이 남달랐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동무들에 대한 의리심은 변함이 없었다. 몇해전 동창생 고예숙동무가 군사복무중에 뜻하지 않게 영예 군인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흥철호동무는 그길로 동창생의 집을 찾았다. 침상에 누운 동창생을 보는 흥철호동무의 마음은 아팠다. 고예숙동무에게 우리 서로 어깨결고 새 생활을 창조해보자며 힘과 용기를 얻어주자 흥철호동무는 인애와 함께 영양식품들을 안고 때없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도 인생의 반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조용히 말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된 흥철호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그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겠는가.

흥철호동무는 머리로써 동창생들의 모습을 하나둘 떠올렸다. 그러던 그의 눈앞에 다가오는 모습이 있었다. 중학시절 고예숙동무와 한복상에 앉아 공부하던 오철진동무였다. 어느날 오철진동무를 만난 흥철호동무는 그가 고예숙동무를 날더리 생각하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오철진동무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준 흥철호동무는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많은 노력을 가졌다. 그들가정에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해주었다. 제자들이 통해 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리미명녀성은 흥철호동무가 더욱 더 미웠다.

이런 그가 세로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서 인민의 생명체산을

구현하고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옛 스승이었다.

리미명녀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처럼 동지적의리가 뜨거운 사람이 달려오는 살수 없는 것이었다.

평양산악영보장사업소 양현수동무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흥철호동무가 성의 김일성과 김정일화은실 보이로보수공사에 동원되었을 때였다. 사실 열공학분야에 대한 경향이 없는 흥철호동무에게 있어서 보이로보수공사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밤낮을 이어가며 해당 부문 기술자들과 연구자들을 만나 토론하고 여러 참고도서들을 구해다 탐독하기도 하였다. 그에게 종업원들이 좀 쉬면서 하신다며 넉넉한 배려를 그 웃음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애우누가 많은데 힘나게 내수없습니까.》

순박하고 고지식한 청년의 일 본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 주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온실보이로보수공사는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났다.

장미비에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의 집을 훌륭히 복구해주기 위해 점심시간마다 돌을 날라다 집울라리를 쌓아준 이야기며 집에 있는 현상이 나와있던 공구들이 사라진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던 흥철호동무가 그 일을 함께 나누며 그의 아이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진정을 다 바

친 이야기...  
참으로 살의 순간순간을 부끄럽이 산 흥철호동무였다.  
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함께 일한 동지대원들의 가슴속에 오래 깃들여있었다.  
흥철호동무가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일한것은 한달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흥철호동무에게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될것을 권고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흥철호동무는 자진해나섰다. 군사복무시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애하 구상에 의해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고싶었다고, 꼭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사업소일꾼들은 그를 막을수 없었다.  
세로지구에 달려나간 첫날부터 흥철호동무는 혁명적근인정 한 마음으로 발휘하여 집단의 사명을 받았다.  
흥철호동무가 희생되기 며칠전 특별해운성특대에서는 2층 살림집기초건설을 위한 구멍이 파기작업을 하였다. 한동안 작업을 진행하던 동지대원들은 길이가 관구처럼 바라보며 이음하는 기초를 박을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흥철호동무는 지휘관들속에서 오가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중대장동무, 구멍이 10cm만 더 파야 할것 같소.》  
《동지대원들이 힘써야하길래 제가 휴식구멍을 내려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동지대원들의 말을 듣는 흥철호동무의 마음은 게을리

않았다. 그것이 꼭 자기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작업을 맡김이 수해하지 못했다 는 생각이 가슴을 흔들었다. 그는 끝내 깊은 밤 폭풍이 몰고오고 있을 때를 기다리며 흥철호동무가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일한것은 한달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흥철호동무에게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될것을 권고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흥철호동무는 자진해나섰다. 군사복무시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애하 구상에 의해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고싶었다고, 꼭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사업소일꾼들은 그를 막을수 없었다.  
세로지구에 달려나간 첫날부터 흥철호동무는 혁명적근인정 한 마음으로 발휘하여 집단의 사명을 받았다.  
흥철호동무가 희생되기 며칠전 특별해운성특대에서는 2층 살림집기초건설을 위한 구멍이 파기작업을 하였다. 한동안 작업을 진행하던 동지대원들은 길이가 관구처럼 바라보며 이음하는 기초를 박을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흥철호동무는 지휘관들속에서 오가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중대장동무, 구멍이 10cm만 더 파야 할것 같소.》  
《동지대원들이 힘써야하길래 제가 휴식구멍을 내려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동지대원들의 말을 듣는 흥철호동무의 마음은 게을리

불속에 튀어들었다. 얼마후 《자, 어서!》는 제철소리와 함께 그는 자기에게로 다가온 두명의 동지대원들을 향해 연기에 의해 질식된 한니를 힘껏 때렸다. 그 순간 흥— 하는 웅장한 소리와 함께 천정이 무너져내렸다.  
《철호!—》  
33살, 길지 않은 인생에 집단을 위해, 동지들을 위해, 조국을 받들어 헌신을 할 아름다운 포부를 가슴 가득 지니던 불같은 사람이 흥철호동무는 이렇게 동지들의 곁을 떠났다.  
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추억하는 사람들앞에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기의 모습이 비겨들었다. 흥철호동무가 남기고 간 이제 돌다섯살 된 아이였다. 이름은 흥재정, 그 이름에도 깊은 사연이 깃들여있었다.  
세정이란 인민이 주인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뜻이라 한다. 아이를 보았을 때 혈육들이 흥철호동무는 말하였다. 무억 짐배를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나 정말 우리 나라같은 곳은 없다고, 돈이 모자라는 지체하고 사치와 허영으로 얼룩진 자본주의 사회와는 대조되게 하는 좋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원형을 담아 세정이란 이름을 받아주셨다.  
아장아장 걸이 품에 안기는 세정이를 꼭 껴안으며 흥철호동무의 안색은 푸르다.  
《세정아, 아버지를 잊지 말아. 아버지같은 참된 사람이 되거라.》  
본사기자 오은별

# 이천군 산림경영소에서

푸른 숲은 나무모발에서부터 시작된다. 양묘장에 심은 어린 나무모발이 배양의 푸른 숲이 되리라 기대하고 파인이 아 내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고 나무모 배반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기 위하여 지체와 열 정을 다 바치었다.

품물인 보람이 있어 나무 모생산에서 좋은 성과가 마련되었다.

경영소의 모태양묘장은 지역이 높을뿐 아니라 가뭄에도 끄떡없이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발을 푸르스름하게 자라게 하는 토대가 든든히 갖추어졌다.

군산림부문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 봄철에 산림부 주전투장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 들을 모태양묘장과 여러 지역에서 나무모발에서 생산으로 많이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산림경영소의 양묘장에서 서는 창성이깔나무와 세일소 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군단위위원회에서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10년안에 별거수양묘장을 모두 수형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조직적시업을 힘있게 벌려오고있다.

특히 푸른 숲은 나무모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것을 잘 알고 양묘장의 지력을 높이고 나무모생산을 늘이는데 선진적인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군단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푸른 숲은 나무모발에서부터 시작된다. 양묘장에 심은 어린 나무모발이 배양의 푸른 숲이 되리라 기대하고 파인이 아 내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고 나무모 배반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기 위하여 지체와 열 정을 다 바치었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농사일을 잘해나갈 수 있다. 이는 우리 남포협동농장 일꾼들이 올해의 모내기를 시작으로 제일먼저 끝낸것을 비롯하여 영농전투의 앞장서 달려나가는 파장에 다시금 새겨진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시 일꾼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야 합니다.》

남포협동농장은 다른 농장들보다 농사에 필요한 물조건이 불리하다고 볼수 있다.

사실 농장에 여러개의 양수장들이 있지만 올해는 가을이 너무 심하여 모내기때에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되어 농장이 모내기를 최적기에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는가. 그 대답은 지난해 가을로부터 시작된다.

리만해 11월 어느날이었다. 리만해 교역일동무는 온 나라가 떨쳐나 몰락보전투를 힘있게 벌리는데 대한 《로동신문》의 사설을 접하게 되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사설보급사업을 조직한 리만해에서는 관리위원장 원광봉동무를 비롯한 관리위원회의 일꾼들과 마주앉아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흐르는 물을 모조리 잡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농장일꾼들은 3대혁명붉은기 제2차전투를 몰락보전투의 앞장에 내세웠다.

리만해군은 작업반장 허옥, 부분담서서 김영철동무들과 마주 앉아 몰락보전투에서 앞장서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적시업을 짜고쳤다. 그리고 작업반원들을 몰락보전투에 부르는 직관선전물을 만들어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물을 잡을수 있는 논들의 두렁을 보강하고 새

로 뜻을 쌓기 위한 사업을 내뿜도록 하였다.

리만해위원회일꾼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한방울의 한사이라도 더 잡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리고 일부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속에서는 하물만 쳐다보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리만해위원회일꾼들은 이런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에게 당정책대로만 하면 튼튼이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도록 일깨워주면서 몰락보전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실속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 나갔다.

관리위원회의 일꾼들은 매일 물확보정형을 장악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이처럼 지난해 가을부터 몰락보전투를 힘있게 벌린 결과, 물짜기로 흐르는 지그마한 실개천의 물과 출구출구 나오는 여러

샘의 물을 비롯하여 농장의 모든 곳에서 물을 잡게 되었다.

한편 리만해위원회에서는 올해 봄철 벼병상모판씨뿌리기를 할때부터 몰락보전투를 타산하여 이른콘모와 영양단지를 확대면적을 다시금 확보하도록 하였다.

가사창 최남철동무는 몰락보전투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작업반마다 이른콘모와 영양단지도 배분정형을 정해놓았다.

이처럼 리만해위원회가 몰락보전투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가 확보된 물의 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른콘모와 영양단지 모배면적을 정확히 확정한 다음 벼모판씨뿌리기를 하고 물빠배와 마른씨베를 잘 배합하였기에 농장에서는 모내기전투를 시종적으로 제일전투 끝낼수 있게 되었으며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좋은 작황을 마련할수 있게 되었다.

결국 대중의 정신력이 불리한 자연조건을 이겼음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나 무 모 발 의 새 주인 들

신양군산림경영소 양묘장 청년양묘작업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철학자면 무엇보다도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전망, 전근, 전된 산림부 주전투로 푸른 땅의 호수를 높이고 싶었다. 12월 신양군산림경영소 20명의 청년들이 앞을 닦아 찾아왔다.

직업과 나이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가슴속에 하나와 같이 뜨겁게 동동치는 당의 뜻 받아 조국의 산물을 푸른 숲이 우거진 보물산, 황금산으로 바꾸어가려는 마음이었다.

산림부 주전투에 부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달려왔다는 이들의 결의를 들은 군단책임일꾼은 양묘장 청년양묘작업반을 내오기로 하였다. 그리고 침구류와 솜옷, 작업복과 생활필수품들을 그들에게 안겨주면서

군단에서는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애국의 마음을 합쳐가지고 고무해줄 것이다. 아직은 나무모우거기에 대하여 이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청년들이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최정숙, 허인복동무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당에서 바라는대로 군의 모든 산물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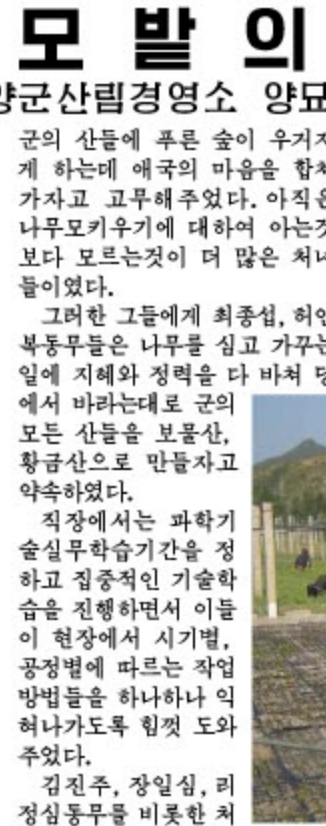
직장에서는 과학기술실용학습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기술학습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현장을 시범하며, 공평법에 따르는 작업방법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기로 함이 되겠다고 하였다.

김진주, 장일심, 리정심동무들 비롯한 청년양묘자들은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면서 이 악하게 노력하였다. 이들은 성형기에 의한 영양단지생산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일꾼 나무모가득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빨리 자라라고 리용가치가 큰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150만그루의 나무모

를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부름에 달려나간 청년양묘작업반은 대담할줄 아는 신양군산림경영소 양묘장 청년양묘작업반원들과 같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더 속력 푸르러 섰어갈 것이다.

김철 사진 특파기자 리혁철



신양군산림경영소 양묘장 청년양묘작업반에서

# 인민사랑의 송고한 뜻 받들어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 최고재판소총재 함경북도재판소총재 일꾼들과 동지대원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세로동반의 천지개혁을 자랑하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따뿔며 일떠세운것을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충을 더하여 건축까지 만들어 인민들의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마련해가고있다.

지금은 이들이 벽장이며 침대, 발상등을 척척 만들며 그와 관련한 기술이나 경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것이더라도 인민들이 애로로 느끼는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인민들에게 무엇이 차려지게 하였다는 보고를 받을 때 제일 기쁘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길에서 무엇을 주저하랴.

일꾼들과 동지대원들은 필요로 삼는것을 해결하는것과 함께 서로 배우고 배우주며 기술을 익혀 마음먹은대로 가구들을 만들수 있게 되었다.

당의 뜻대로 인민의 참된 행복, 심부름꾼이 되리라. 중대장 서승혁, 정치지도원 서철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동지대원모두가 이런 열의를 가지시라. 본 발해나서고있는 가운데 전투장에서 인민의 행복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철 사진 본사기자 리혁철

위대한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린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생활기풍과 건전한 생활양식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습니다.》

수안군에 가본 군인민병정문으로 많은 일꾼들이 드나드는것을 볼수 있다. 군단위원회의 일꾼들과 군인위원회를 비롯한 군안의 일꾼들이었다.

처음에 일꾼들이 군인민병정문으로 자주 드나드는것을 본 사람들은 사업상문이나 문상대가 의미적이지 않다는것으로 깨달았다. 이리하여, 한편으로는 군안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걸머진 일꾼들이여 걱정하는 속출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업에 대하여 페후야 알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군에서 새로 부른 1등 2세대의 아담한 살림집으로 이사오는 가정들이었다. 특류영예군인 박정철동무의 가정이었다. 세바퀴 돌아와 군인민병정문의 손에 퍼 밀러워 열매비준과 매자, 가구류와 침구류며 자그마한 부엌에갈에 이르기까지 살림살이 미흡한 모든것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집안으로 들어서서 영예군인의 눈에서도, 안색의 열광도 눈물이 섞임없이 흘러내렸다.

하반신을 뭍은 영예군인이 갑자기 병이 나오 인차 치

# 행복의 처마아래 넘치는 정

수안군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들의 생활에서

로를 받을수 있게 군인민병정문의 이웃한 곳에 살림집을 마련한 군인민병정문과 군인위원회일꾼들의 진정을 생각할수록 박정철동무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해 낱이 뜨겁게 인겨들었다.

몇해전 영예군인이 된 몸으로 고향을 떠나고 싶었다. 그의 치료를 위해 군인민병정문의 의사와 함께 갈수록 멀어지던 당일군이였다. 평양으로 올라와서도 그의 입원생활에 미흡한 점이 있는가 하나하나 관심을 돌리며 보살피는 그 모습은 친아버지의 심정 그대로였다.

이렇게 군인의 일꾼들과 군인들이 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다. 영예군인 박정철동무가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혁명의 뜻을 활짝 펴우려 한다 하므로서 군인위원회일꾼들을 비롯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극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어찌 그 가정 하나뿐인가. 같은 날 박정철동무와 한자방아에 불금자리편 영예군인 민오식동무의 가정을 비롯한 군인의 영예군인들의 가정들에 그렇게 육친의 정이 흘러들고있다.

그들이 살아가는 집은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살림집이다. 하지만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속에 그 처마아래 울려넘치는 정은 그토록 뜨겁고 끝이 없는것이다.

신 현 규

# 사회주의대가정에 꽃피는 미덕

위대한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큼니다.》

4년전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대성지도국 아래단위 로동자 민수향동무는 어머니와 함께 선교구의 동계 3동에 사는 한 영예군인의 집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의 눈앞에는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충정의 자욱을 새겨놓은 리춘복동무의 모습이 감동적일 정도로 보였다. 그로 말하면 지난 기간 정성껏 마련한 꽃피고 관피도구들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했었다.

영수향동무에게는 그 영예군인에 비하면 자신이 이 땅

# 돌보이느라 처녀

대성지도국 아래단위 로동자 민수향동무

위대한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큼니다.》

4년전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대성지도국 아래단위 로동자 민수향동무는 어머니와 함께 선교구의 동계 3동에 사는 한 영예군인의 집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의 눈앞에는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충정의 자욱을 새겨놓은 리춘복동무의 모습이 감동적일 정도로 보였다. 그로 말하면 지난 기간 정성껏 마련한 꽃피고 관피도구들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했었다.

영수향동무에게는 그 영예군인에 비하면 자신이 이 땅

# 독자의 편지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강제시에서 살고있는 저의 딸이 난치의 병에 걸려 강개의 학대할 강계시인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다.

제가 이런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맥을 졸랐는데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리계형선생님과 당당사 김은희선생님이 입원실로 들어와 신심을 잃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시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는것이였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그 마음은 고마웠지만 매개지도 저들 딸자식의 소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다. 그러나 1차수술을 하고난 뒤 저의 딸에게 피가 요구되자 서슴없이 저의 피를 뽑아 넣어주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진정할수가 없었습니다.

#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로씨야에서 진행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24일 로씨야 원동지방함평대학에서 진행되었다.

도서기증식에는 울라지보스 토코인주 로씨야외무성대표부, 막심 고리키명칭 연해변방구립도서관, 원동지방함평대학의 인사들과 공중들, 나호드카주제 우리 나라 대표부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우리 나라의 사회정치, 력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도

서들이 전달되었다.

울라지보스주제 로씨야외무성대표부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꽃길은 올해는 로조친선의 해이다.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 많은 분야에서 호상 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오늘의 도서기증식은 두 나라사이의 문화회조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한성해나가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말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막심 고리키명칭 연해변방구립도서관은 사업상문이나 문상대가 의미적이지 않다는것으로 깨달았다. 이리하여, 한편으로는 군안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걸머진 일꾼들이여 걱정하는 속출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업에 대하여 페후야 알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군에서 새로 부른 1등 2세대의 아담한 살림집으로 이사오는 가정들이었다. 특류영예군인 박정철동무의 가정이었다. 세바퀴 돌아와 군인민병정문의 손에 퍼 밀러워 열매비준과 매자, 가구류와 침구류며 자그마한 부엌에갈에 이르기까지 살림살이 미흡한 모든것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집안으로 들어서서 영예군인의 눈에서도, 안색의 열광도 눈물이 섞임없이 흘러내렸다.

하반신을 뭍은 영예군인이 갑자기 병이 나오 인차 치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24일 로씨야 원동지방함평대학에서 진행되었다.

도서기증식에는 울라지보스 토코인주 로씨야외무성대표부, 막심 고리키명칭 연해변방구립도서관, 원동지방함평대학의 인사들과 공중들, 나호드카주제 우리 나라 대표부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우리 나라의 사회정치, 력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도

# 사회주의대가정에 꽃피는 미덕

위대한 병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린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생활기풍과 건전한 생활양식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습니다.》

수안군에 가본 군인민병정문으로 많은 일꾼들이 드나드는것을 볼수 있다. 군단위원회의 일꾼들과 군인위원회를 비롯한 군안의 일꾼들이었다.

처음에 일꾼들이 군인민병정문으로 자주 드나드는것을 본 사람들은 사업상문이나 문상대가 의미적이지 않다는것으로 깨달았다. 이리하여, 한편으로는 군안의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걸머진 일꾼들이여 걱정하는 속출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업에 대하여 페후야 알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군에서 새로 부른 1등 2세대의 아담한 살림집으로 이사오는 가정들이었다. 특류영예군인 박정철동무의 가정이었다. 세바퀴 돌아와 군인민병정문의 손에 퍼 밀러워 열매비준과 매자, 가구류와 침구류며 자그마한 부엌에갈에 이르기까지 살림살이 미흡한 모든것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집안으로 들어서서 영예군인의 눈에서도, 안색의 열광도 눈물이 섞임없이 흘러내렸다.

하반신을 뭍은 영예군인이 갑자기 병이 나오 인차 치

# 행복의 처마아래 넘치는 정

수안군에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들의 생활에서

로를 받을수 있게 군인민병정문의 이웃한 곳에 살림집을 마련한 군인민병정문과 군인위원회일꾼들의 진정을 생각할수록 박정철동무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해 낱이 뜨겁게 인겨들었다.

몇해전 영예군인이 된 몸으로 고향을 떠나고 싶었다. 그의 치료를 위해 군인민병정문의 의사와 함께 갈수록 멀어지던 당일군이였다. 평양으로 올라와서도 그의 입원생활에 미흡한 점이 있는가 하나하나 관심을 돌리며 보살피는 그 모습은 친아버지의 심정 그대로였다.

이렇게 군인의 일꾼들과 군인들이 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다. 영예군인 박정철동무가 하루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혁명의 뜻을 활짝 펴우려 한다 하므로서 군인위원회일꾼들을 비롯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극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어찌 그 가정 하나뿐인가. 같은 날 박정철동무와 한자방아에 불금자리편 영예군인 민오식동무의 가정을 비롯한 군인의 영예군인들의 가정들에 그렇게 육친의 정이 흘러들고있다.

그들이 살아가는 집은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살림집이다. 하지만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속에 그 처마아래 울려넘치는 정은 그토록 뜨겁고 끝이 없는것이다.

신 현 규

# 독자의 편지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강제시에서 살고있는 저의 딸이 난치의 병에 걸려 강개의 학대할 강계시인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다.

제가 이런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맥을 졸랐는데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리계형선생님과 당당사 김은희선생님이 입원실로 들어와 신심을 잃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시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는것이였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그 마음은 고마웠지만 매개지도 저들 딸자식의 소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다. 그러나 1차수술을 하고난 뒤 저의 딸에게 피가 요구되자 서슴없이 저의 피를 뽑아 넣어주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진정할수가 없었습니다.

#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로씨야에서 진행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24일 로씨야 원동지방함평대학에서 진행되었다.

도서기증식에는 울라지보스 토코인주 로씨야외무성대표부, 막심 고리키명칭 연해변방구립도서관, 원동지방함평대학의 인사들과 공중들, 나호드카주제 우리 나라 대표부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우리 나라의 사회정치, 력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도

